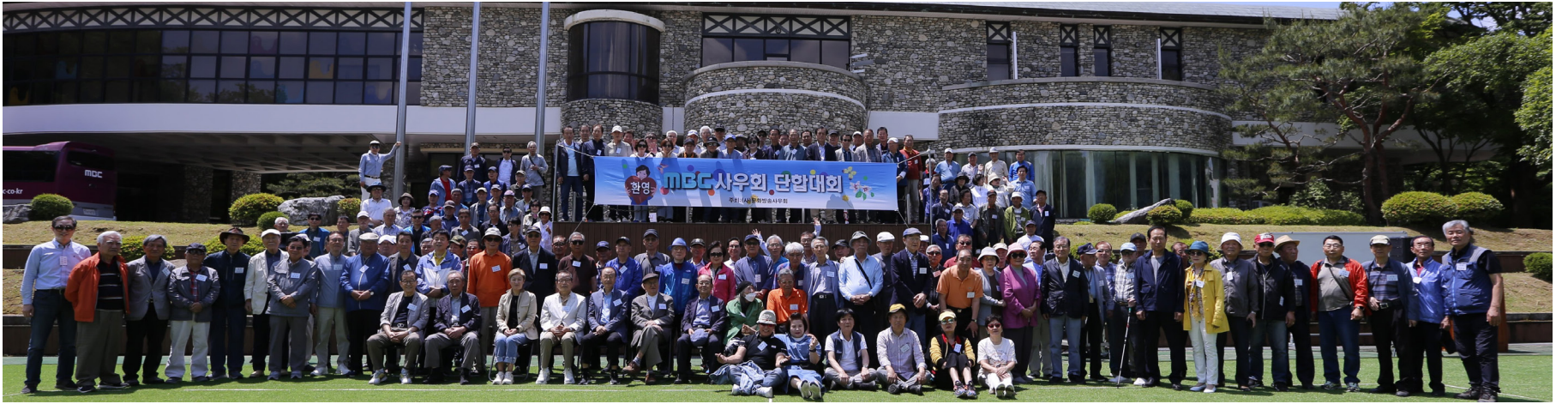


사우회 창립 34주년 단합대회 열려



사방에 초록이 무성하고 햇별이 다소 따갑게 느껴지는 5월 21일 (화) 11시 30분 양주 MBC문화동산에서 사우회 창립 34주년을 기념하는 회원 단합대회가 열렸다.



사회 고창근

전국에서 모인 156명의 회원과 MBC 임직원 다수가 참석한 이날 대회는 고창근(ANN)회원의 오프닝 멘트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순국선열과 먼저 가신 방송인들에 대한 묵념, 社歌 제창, 단체사진 촬영 順으로 진행됐다.

장명호 사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보다 많은 회원님들의 건



장명호 사우회장

MBC고 MBC가 나'였던 현역 시절을 회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MBC 안형준 사장

강한 모습들을 다시 보니 반갑다. 오늘만큼은 정치 얘기, 아프다는 얘기는 빼고 과거 휴일도 반납한 채 ‘내가 MBC고 MBC가 나'였던 현역 시절을 회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형준 MBC사장은 “올해 MBC는 4월 총선방송에서 시청률 압도적 1위를 달성했고, <수사반장>이라는 자

랑스런 IP를 재해석한 <수사반장 1958>드라마가 시청률 10%를 넘기는 쾌거를 이뤘다. OTT나 AI 등 시시각각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도 MBC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선배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MBC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김수량 고문은 건배사에서 “MBC를 위하여, 사우회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건배하자”고 제의해 박수를 받았다. 포천



건배사 김수량 고문

에서도 이름난 <수중공가든>의 이동갈비가 푸짐하게 회원들에게 제공됐으며 부문별로 자리를 잡은 회원들은 각종 주류를 곁들여 맛있는 식사를 즐겼다.

한편 대회가 시작되기 전 일부 회원들은 <수사반장> 오픈세트장을 둘러 보며 드라마에서 봤던 얘기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다. MBC는 이번 행사의 재정적 지원 외에도 의료팀을 배치하고 보조인력을 파견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단합대회는 2시 경에 끝났고 회원들은 사무처가 마련한 기념품을 받아들이고 준비된 4대의 버스를 타고 귀갓길에 올랐다.

* 단합대회 스케치는 2면에 →

반짝이는 워터멜론 · 동백꽃 필 무렵 · 가우스전자 · 소문난 칠공주 · 여름향기 · 오케이 광자매 · 청춘기록 · 태양인 이제마 · 동백꽃 필 무렵

자꾸 보고 싶은 나만의 인생작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10, The PAN 10F

사우회 낚시대회 마쳐



4월 19일(금) 강화군 화도면 선두포水路에서 사우회가 주최하는 낚시대회가 열렸다. 10명의 회원

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화창한 날씨였지만 조황釣況은 썩 좋지않았다. 약 5시간여 낚시 결과 김휴선(보도)회원이 35cm 붕어를 낚아 1등을 했으며 2등은 18cm 붕어를 낚은 강정수(관리)회원이 차지했다. 대회를 마친 회원들은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나눴고 사무처에서는 참석 회원들에게 고급 타월을 선물했다.



1등 김휴선(보도)회원



2등 강정수(관리)회원

회/원/동/정/

▶유혜자(편제)



인 한국문인협회가 발표했다.

본인의 이름을 딴 『유혜자수필문학상』 제1회 수상자로 수필가 민명자 씨를 선정했다고 주관사

▶김재홍(관리)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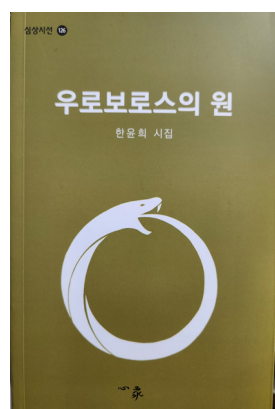
네 번째 시집 『돼지촌의 당당한 돼지가 되어』가 가톨릭문학상 작품상에 선정되어 5월 9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시상식을 가

▶한윤희(관리)



서 정시가 담겨 있다. 문학평론가 박동규 교수가 자당한 시평을 덧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시인으로 등단한 이후 첫 번째 시집 『우로보로스의 원』을 발간했다. '고려산진달래' 등 79편의



단/합/대/회/스/케/치/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이향진(보도)

1986년 보도국 영상기자 입사. 보도국 부국장, 영상데이터파트장 등 근무. 2025년 퇴사.



▶이우환(편제)

1993년 시사교양국 PD 입사. 다큐멘터리부장, 시사교양본부장. 현 MBC경남 사장.



▶함상호(보도)

1985년 보도국 영상·편집부 입사. 보도제작국, 스포츠국 등 근무. 2021년 퇴사.



▶신기욱(기술)

1987년 기술국 입사. 제작기술국, 디지털기술국 부국장, 인프라 기술국 감독 등.



▶진종재(관리)

1991년 총무국 입사. 경리부, 광고영업부장, 감사국장 등 근무. 현 대전MBC 사장.



▶고학진(관리)

1986년 입사. 방송연구소, 감사국 기획팀장, 콘텐츠사업국 국장 등. 2024년 퇴사.

동/호/회/

▶인사동클럽(회장 이건설)

라디오 PD들의 모임인 <인사동 클럽>은 4월 1일 신문로 '안성포순이'에서 13명의 회원이 참석해 오찬을 나누고 친목을 다졌다. 최근 한국문인협회 주관으로 시행된 『유혜자수필문학상』 시상식에 관한 애기와 서규석 고문택을 방문했던 일 등이 화제에 올랐다.



발전 기금을 주신 분들(3월 15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 | | | | | |
|-------------------|----------------|----------------|----------------|----------------|
| • 장명호(사우회장) 100만원 | • 전용립(관리) 20만원 | • 최영근(편제) 10만원 | • 양윤모(보도) 10만원 | • 박수부(업무) 10만원 |
| • 박웅곤(관리) 50만원 | • 권병국(편제) 10만원 | • 이재갑(편제) 10만원 | • 이상이(보도) 10만원 | • 이해결(업무) 10만원 |
| • 김정수(미주) 30만원 | • 박우성(편제) 10만원 | • 윤영관(편제) 10만원 | • 박래양(보도) 10만원 | |
| • 이대교(관리) 30만원 | • 이태술(편제) 10만원 | • 김광용(기술) 10만원 | • 엄기원(관리) 10만원 | |
| • 이순조(기술) 20만원 | • 오인환(편제) 10만원 | • 이상로(보도) 10만원 | • 김재욱(관리) 10만원 | |



회비와 발전기금을 보낼 계좌번호

연회비는 사우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들께서는 사우회가 드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c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경조사항

구순: 송재선(업무) 35.05.26

팔순: 최대홍(관리) 45.05.16 이대교(관리) 45.05.27 이영하(기술) 45.05.27
윤풍기(관리) 45.06.06 이연경(ANN) 45.06.18 이원하(기술) 45.06.25
김기도(보도) 45.06.30 김동진(보도) 45.07.12 이현규(보도) 45.07.13

고희: 주철환(편제) 55.05.29 조형재(편제) 55.06.12 윤재근(보도) 55.06.15
오창식(보도) 55.07.01 서제우(편제) 55.07.13 정복근(편제) 55.07.15

회갑: 김선천(보도) 64.05.21 이우환(편제) 64.05.27 이혁재(보도) 64.06.03
권영삼(관리) 64.07.18

결혼: 정찬래(편제) 딸 3/24 배상무(기술) 아들 3/30 조수현(보도) 아들 3/31
양진수(ANN) 아들 4/14 정길용(관리) 아들 5/4 방기천(기술) 아들 5/18
안혜란(편제) 아들 5/26 오창식(보도) 딸 6/1 이형관(보도) 아들 6/1
우대희(보도) 아들 6/2

부음: 정경석(관리) 모친상 3/12 김榮日(보도) 장모상 3/13
이완수(대구) 배우자상 3/13 윤경진(편제) 장모상 3/16
이순조(기술) 모친상 4/8 권혁화(ANN) 부친상 5/16

연회비

평생회비: 신기옥(기술) 이향진(보도) 진종재(관리) 함상호(보도)
2023년: 정갑표(기술) 이종수(관리)

2024년: 강유현(대구) 강효복(관리) 강현식(편제) 고학진(관리)
김억동(보도) 김종민(편제) 김철형(편제) 성창용(대전)
이우환(편제) 이종화(대구) 정봉일(대구) 정연호(ANN)
정진도(전주) 조은국(관리) 한승영(기술) 황종휘(관리)

2028년: 김주배(편제) 2033년: 임태성(보도) 2034년: 이상근(기술)

주소변경 / 신규

편제: 광영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113번길 16(성동마을 강남빌리지)
안택호 서울 송파구 거마로 56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
이명기 서울 강남구 자곡로11길 28 (자곡동) LH수서 2단지
이우환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0-12 (신촌럭키아파트)
이정식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70 (햇빛마을21단지아파트)

보도: 이향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30 (DMC리슈빌더포레스트)
이형관 경기 광명시 새터로 90 (광명동,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조수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80 (위시티일산자이1단지)
함상호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로 16 (기흥역지웰푸르지오)

기술: 신기옥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2 (DMC파크뷰자이)

관리: 고학진 서울 양천구 중앙로43길 14 (래미안 목동아텔리체)
김근중 서울 도봉구 마들로 646 (방학동, 방학동삼성래미안)
진종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50 (목동신시가지아파트5단지)

업무: 이화옥 경기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63번길 32 (죽전동) 아르떼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崔洛喆(관리)
3월 26일 별세.
향년 85세.
1985년 총무국
총무부 입사.
시설관리국 근무.
1997년 정년퇴직



張禹植(편제)
3월 31일 별세.
향년 87세. 1969
년 TV제작국 미술
부(분장담당) 입사.
1993년 퇴직. 방송
문화원 교수.



黃貴喆(업무)
4월 30일 별세.
향년 80세. 1973
년 영업국 입사.
라디오영업부 등
근무. 1981년 퇴
사후 코바코 근무.



李 增(보도)
5월 11일 별세.
향년 87세. 1969년
입사. 보도국, MBC
청룡 상무,
울산MBC 사장 등
역임. 1989년 퇴사.

나의 MBC 시절



김우룡(편제)

▶SKY대학 강단에 서다

나는 MBC 재직 중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른바 SKY대학 강사를 모두 경험했다. 그 시작은 이렇다. 1973년 어느날, 드라마 파트의 李孝英 선생이 ‘좀 보자’고 해서 9층 커피숍 Liebe에서 만났는데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서울예술대 강의를 맡아달라’고 했다. 과목은 <세계방송사>와 <방송론>이었다. 이 선생은 원래 연극을 하던 분으로 TBC에서 활동하다가 MBC TV개국 때 옮겨 오셨다.

일일연속극 <情>(조남사 작), 주간 드라마 <이상한 아이>(김기팔 작), 1975년 히트작 <신부일기>(김수현 작) 등을 연출하던 중 의사인 아내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분야가 달랐지만 이 분은 나를 종종 찾았다.

한번은 만나자마자 봉투를 하나 내밀며 “저어기 말이야, 미안하지만 심부름을 좀 해주면 좋겠어.” “뭔데요?” “신인 여자탤런트 어머니가 이 돈을 보냈는데 돌려줘야 할거 아냐? 내가 직접 돌려주면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러니 나 대신 그 집을 찾아가서 돌려줬으면 해.” “그거야 뭐 어려울 거 있나요.” 나는 그 돈을 들고 이촌동으로 가서 돌려주었다.

하루는 이 선생이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 광화문 대구탕집으로 기억한다. 점심 뒤에 李御寧 선생이 주간으로 있는 文學思想社에 가보자고 했는데, 당시 文學思想 사무실은 중앙청 앞 적선동에 있었다. 그 때 이어령 선생을 처음 뵈게 됐다. 이효영 선생은 이어령 선생의 절친이었다.

우리 셋은 난롯가에 앉아서 환담을 나누었는데 나는 첫 대면에서

두 가지 일에 크게 놀랐다. 이른바 博學強記라는 말이 그를 위해서 생긴 듯 싶었다.

그는 달변에 동서양 고전을 위시하여 화제가 종횡무진했다. 백과사전적 지식에 창발력까지 빼어난 분이였다. 청소년 시절 이 선생이 쓰신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를 읽고 얼마나 감동했던가. 또 다른 한 가지는 그가 대단한 변설가라는 사실이었다. 두 시간 내내 나는 그의 motored-mouth에 감탄만 하다가 헤어졌다.

그 당시 서울예술대는 남산 드라마센터에 있었는데 몇 년이나 강의를 했는지 잊었지만 이 시절 준비한 강의노트는 장차 대학 선생을 하는데 밑천이 됐다. 당시 방송영상학과(처음 이름은 방송연예과)에는 오사랑, 정일몽 등 원로 교수가 계셨고 내 클래스에 다니던 학생으로는 길용우, 선우은숙, 이성미 등이 있었다.

1976년인가, 은사이신 서울대 朴有鳳 교수와 임근수 교수가 회사로 찾아 오셨다. ‘지나가다 자네가 생각나서 들렀다’고 하시면서 “예쁜 탤런트 좀 소개해 달라”고 농담을 하셔서 허허 웃고 말았다.

박 교수께서는 내게 ‘다음 학기 서울대에 출강하게’라고 말씀하셨다. 그걸 통보하기 위해 일부러 회사까지 찾아 오실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게 서울대 강사로 발탁됐다.

담당 과목은 <방송학개론>이었다. 이후 1983년에 고려대에서 처음 맡은 과목은 <커뮤니케이션 형태론>이었다. “이거 뭘 가르치는 거죠?” 吳澤燮 교수께 물었더니 오 교수의 답변이 걸작이다. “김 선생이 가르치고 싶은 걸 마음대로 가르치세요”했다. 고려대 81학번 신방과에는 수재들이 많았다. 마동훈, 강형철, 박천일, 심미선, 설진아, 최영재 등 훗날 이름을 날린 20여명의 학자가 배출됐다.

1983년은 UN이 정한 ‘커뮤니케이션의 해’였다. 연세대 李相回 교수가 전화를 주셔서 다음 학기 출강을 요청했다. <뉴커뮤니케이션>이란 과목이었다. 국내 최초로 뉴

미디어 강좌가 연세대 신방과에 개설됐고 이걸 맡는 영광이 내게 돌아온 것이다. 연세대 강의를 계기로 나는 뉴미디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여러 곳에 관련 글을 썼다. 1987년에는 국내 최초로 <케이블TV 원론>을 출간했고 91년에는 학계 처음으로 <뉴미디어 개론>을 출간해서 ‘뉴미디어 연구자’로 각인됐다.

▶노래를 못해 공부했다

나는 한동안 TV제작국 제작3부 또는 교양반 소속으로 일했다. 퀴즈, 어린이, 교양 프로와 행사 프로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우량아 선발대회’, ‘여성 경진대회’, ‘어린이 사생대회’ 등은 제법 큰 행사였다. 이들 행사의 생방송이 끝나면 수고한 스태프를 격려하고 자축하기 위해 저녁 회식 자리가 마련됐다.

장소는 정동 사옥에서 가까운 연신내 부근으로 그곳의 이름은 지금도 생생하다. “보리밭” “럭키세븐” “나도몰라” “황금마차” 등이었다.

호스티스가 있고 밴드가 연주하는 비어 홀로 호주머니 가벼운 월급장이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었다. 그러나 “오늘 회식 장소는 어디야?” “보리밭이래.” 그러면 나는 두말없이 집으로 가버렸다. 술 마시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음치인 나는 노래가 질색이었다. 노래 못하는 덕분에 나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었다.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은 1970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언론학 석사과정이었다. 지금은 언론정보학, 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신문방송학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1960년대만 해도 ‘신문학’은 이름 뿐이었고 수여하는 학위 명칭도 제 각각으로 연세대와 경희대는 정치학박사, 고려대는 문학박사였다. 한때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에는 플랜 A와 B를 설치하여 A는 사회학, B는 신문학 전공으로 운영했다. 학위 명칭은 사회학박사였다. 일찍이 미래를 내다 보고 신문대학원을 설립한 것은 초대 원장이었던 金圭煥 박사의 업적이다.

동경대학에서 신문학 연구로 사회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 원장은 처음에는 서울대에 신문연구소를 설치하고 1년 과정 연구생을 배출했다. 그 모델은 동경대학 신문연



외대생들과 일본 여행

구소였고 이를 확대 발전시킨 것이 바로 신문대학원이었다.

1970년 대학원이 설립되고 신입생을 봄, 가을 학기로 나누어 두 차례 선발했다. 나는 1971년 9월에 석사 4기로 입학했다. 그전 해에 입학코자 했으나 중견 언론인(mid-career journalist)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언론사 재직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아 지원 자격이 없었다. 함께 다닌 동기생 중에는 金圭七(전 불교방송사장), 玄勝一(전 국민대총장), 刑鎮漢(전 진주MBC 사장), 金熙玉(전 동국대총장) 등이 있었다.

초창기 신문학 교수로는 1955년 홍익대학에 신문학과를 창설한 광복산 교수, 이화여대의 이해창 교수, 중앙대의 최 준 교수, 서울대의 박유봉 교수 등이 계셨는데 대부분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들로 독일의 영향을 받은 소피아(上智)대학 출신들이었다.

‘커뮤니케이션’ 또는 ‘매스미디어’는 미국적 학문이다. 미국의 미디어 연구를 국내에 처음 소개하기 시작한 분이 김규환 교수였다. 70년대 초는 매스컴 교육과 연구가 아주 연천한 시기였다. 국내 처음으로 미국 매스컴 연구의 4대 창시자 윌버 슈램, 해롤드 라스웰, 폴 자자스펠드, 프레드 시버트 등을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Drug Study 등 전파이론(diffusion theory)을 처음 접했던 곳 역시 신문대학원이었다.

나의 대학 전공은 매우 다양하다. 처음엔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다. 고등학교 때 문학 청년이었던 나는 시인이 되고 싶었다. 아울러 문학평론가를 꿈꿨다. 그러나 선친의 권유로 理科반으로 갔고 가업을 잇기 위해 서울대 약학대를 지원했다. 그러나 적록색약은 의약 계열에 진학할 수 없었다. 당시 서울대 입시는 학과시험 뒤에 바로 신체검



홍콩 국제언론 심포지움

사를 받도록 하였다.

“어 허, 자네는 잘못 왔네.” 나는 서울대에서 가까운 해화동 로터리에 있던孔안과로 달려 갔다. 눈 검사를 다시 받아 보았더니 赤綠색약이 확실했다. 적록색약이란 푸른 점 바탕에 붉은 점 하나를 찍어 놓으면 붉은 점을 찾아내지 못한다. 예컨대 골프장에 가서 푸른 그린 위에 빨간 깃대를 꽂아 두면 나는 핀의 위치를 알지 못한다.

61년 한국 대학은 이름 그대로 牛骨塔이었다. 서울대만 정원을 지키고 고려대와 연세대는 약 30%를 더 뽑았고 성균관대, 한양대 등은 정원 개념이 없었다. 대체로 정원의 5, 6배쯤 신입생을 뽑았다. 20명 정원이면 120명 안팎을 합격시켰고 50명인 경우 5, 6배나 되는 학생을 선발했다. 혹 교육부에서 감사가 나올치면 학교 당국은 내일 A반 빼고는 모두 휴강이니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다.

서울대에 떨어지고 나서 누군가 내게 알려 주었다. “네 점수가 커틀라인 보다 38점이나 높았다더라.” 그 해 서울대 입시에서는 국어 作文시험이 있었다. 200자 원고지를 20장씩 나눠주고 “푸른 잔디 위에서 흰 구름을 바라보며”라는 제하에 글을 쓰라는 문제였다. 문학 청년이었던 내게는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었다.

2년 후에는 고려대 영어영문학과로 전과했다. 영문학과 졸업장을 받았으나 영어선생이 될 생각은 없었다. 60년 중반 새로운 학문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 경영학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商學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경영대학원이 전국 대학마다 있지만 1965년 국내 최초로 경영대학원을 설치한 곳은 고려대였다. 나는 66년 마케팅 전공 석사 4기로 경영대학원에 들어 갔다.

그 뒤 다시 서울대에서 매스컴을



연세대에서

공부했다. 당시 MBC 이환의 사장은 학구적인 분이였다. 중앙대 초빙교수로 출강도 하였고 ‘교육방송론’이라는 저술도 하셨다. 나는 신문대학원을 장학생으로 다녔는데 두 학기는 성곡언론문화재단이 지원했고 두 번은 MBC의 특별 장학금을 받았다.

당시 이환의 사장은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는 사원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수혜자가 됐다. 이어서 네덜란드 정부 초청으로 TV 프로그램 제작자과정을 이수하고 다시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신문대학원에서 journalism을 공부했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방송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경영학, 매스컴, 저널리즘, 신문방송학 등을 두루 섭렵한 셈이다. 학제적(interdisciplinary)이라는 말이 있다. ‘인접한 학문이 서로 교류 융합하면서 창의성이 발휘되는 현상’을 뜻한다. 융합 또는 통섭이라고도 한다. 나는 일찍이 통섭을 경험한 것이다.

▶테뉴어(tenure)를 받기 까지

지금이야 전국에 신문 방송 관련 학과가 100개도 넘는다. 국어국문학과도 무슨 문학콘텐츠학과로 개칭을 하였고 역사학과는 역사콘텐츠학과로 불린다. 신입생을 유인하기 위해 별별 위장술을 다 쓰고 있다. 1984년 전국 대학에 신문방송학과는 10개에 지나지 않았다. 서울의 메이저 대학을 제외하면 지방에는 몇 개 있지도 않았다.

이 해에 4개의 신방과가 추가로 허가되었다. 수원대학, 경북대학 등으로 기억한다. 나는 오래 전부터 연구자가 되기 위해 대학으로 전직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다. 아이들은 크는데 배삼룡, 구봉서, 이기동 등 코미디언을 출연시켜 벤치 위에 놓인 고무풍선이나 터트리고, 아니면 안대 씌우고 손 뒤로 묶어 줄에 달린 찹쌀떡을 따먹도록 하는 게임을 보면서 방송 일에 흥미를 잃었다.

게다가 총선이나 대선이 끝나고 ‘수고했다’고 청와대에서 하사금이 내려 오면 누구 하나 ‘이 걸 왜 받느냐’고 따지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금액이 적다’고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는 이런 분위기가 싫었다. MBC는 한때 권언유착이나 제도언론을 넘어 “청와대 직영 방송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다.

1984년 말 대학교수 초빙 광고가 신문에 나왔다. 어디 있는 대학

인지도 모른 채 무작정 떠날 생각만 하던 나는 수원대 교수 초빙에 응모했다. 신문방송학과에 20여명이 지원하여 서류심사, 심층면접을 거쳐 단 한 사람이 최종 선발됐다. 1985년 1월로 기억한다.

이 때 나는 李秀正 전무(나중에 문화공보부 장관이 됨)가 주관하는 MBC발전위원회의 간사로 일하고 있었다. 의욕과 아이디어가 넘치던 이 전무는 부임하자 곧바로 문화방송을 reset할 필요성을 느끼고 특별 task force를 만들어 스스로 위원장을 맡았다. 어떤 날은 출근해서 8시간 내내 그의 방에 붙들려 있기도 했다. 내가 ‘대학으로 떠나겠다’고 했을 때 끝까지 함께 일하자고 만류했던 분은 이 전무였고 반면에 민용기 제작이사는 잘 됐다고 전직을 축하해 주었다.

나의 대학 생활에는 몇 차례 운이 따랐다. 처음 수원대학에 가서 임명장을 받고 보니 <전임강사, 33호봉>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곧바로 교무처장을 만나 ‘그만 두겠다’고 통보하고 귀가해버렸다. 학교가 발각 뒤집혔다. 교수 지망생들이 줄 서 있는 판에 사령장을 받자마자 돌연 그만 두겠다고 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저녁 무렵 교무처장이 “무슨 일 이시냐? 이사장이 뵈고 싶어 하니 내일 꼭 나오시라”고 간청했다. 마지못해 다음날 9시 테헤란로에 있는 재단 사무실로 이사장을 만나러 갔다.

“왜 그만 두려고 하십니까?” “아니, 전임강사가 뵈니까?” “그럼 어떻게 해드려요?” “조교수로 올려주세요. 호봉도 5호봉 상향 조정해주시구요” 얼핏 당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요청이었지만 어떤 일인지 이사장이 순순히 대답한다. “알았습니다. 걱정 마시라요” 나는 한술 더 떠 “3일 내로 조치해 주십시오”라고 못박았다.

이사장은 전화로 교무처장을 불러 ‘김 아무개 선생을 찾아 뵈고 이분이 요청하는 사안을 그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속된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 당시만 해도 신설 대학에서는 직급과 호봉을 오너 마음대로 조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간해서는 조교수 직급을 주지 않았다. 나는 방송사 부장으로 5년이나 일했는데 전임강사라는 것은 당치않다고 생각했다.



월버 슈람 교수와 함께

게다가 이 대학 이사장은 나의 대학 선배인데다가 신설 대학 입장에서 보면 언론사 간부 출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심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한 제안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수원대학에 부임하고 며칠 뒤 후배 金東源(경제학과, 前 국민은행 부행장) 교수가 내 연구실로 찾아 왔다. ‘김선배 때문에 학교가 뒤집어졌다’고 했다.

그 해 28명의 신입 교수가 나와 함께 부임했는데 미국박사든 경력 있는 교수든 모조리 전임강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학위도 없는” 나 혼자만 조교수가 됐다는 것이다. “걱정 놓으시게. 내 덕에 다음 학기 전 부 조교수로 승진할 걸 세.” 한 학기 뒤 내 말은 그대로 실현됐다.

수원대학에서 2년쯤 경력을 쌓아가는 중 외국어대학교 교수 한 분이 자기 대학교의 교수초빙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외대 신방과는 국제홍보 관련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홍보학과라는 이름으로 설치됐다.

그 뒤 1987년 신문방송학과로 개칭되면서 방송분야 교수가 필요하게 됐다. 그런데 정진석, 김정기, 김진홍 교수 등 저명한 학자들이 모두 인쇄미디어 출신이었다. 학과 차원에서 기존 대학 교수, 연구소 박사들을 스크린한 결과 나를 적임자로 지목한 것이다.

지방대학에서 서울 4대문 안으로 점핑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던 시절에 나는 외대로 옮기면서 부교수 발령을 받았다. 인사규정이 바뀌어 법학, 경영, 무역, 신방 등 실무관련 학과는 경력을 최대 80%까지 인정했기 때문이다. 조교수 2년 만에 부교수가 됐고 5년 뒤에 정교수로 승진하여 교수된 지 7년만에 테뉴어(tenure 대학이 교수직을 평생 보장해주는 제도)를 받았다.

〈나의 MBC시절〉



서정훈(보도)

1924년 이후 100년 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치러지는 33회 하계올림픽(7월 26일~8월 11일)이 다가온다. MBC에 근무하는 동안 스포츠 분야에서만 전력을 다해온 지라 올림픽 시즌이 되면 여러가지 추억들이 떠오른다. 올림픽이 개막 되면 국민들은 메달 획득에 관심을 집중하지만 중계를 담당하는 방송 3사는 매 경기의 시청률 전쟁에 돌입한다.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개막 1년여 전부터 캐스터와 해설자 선정, 중계의 차별화 전략, 현지 사전취재, 중계 장비 운송 등 완벽한 중계와 시청률 선점을 위해 시청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노력이 진행된다. 1984년 LA올림픽 취재를 시작으로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 이르기까지 여섯 차례의 올림픽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한 행운을 간직하고 있다. LA와 서울, 바르셀로나, 애틀랜타 등 네 차례는 취재 기자로, 시드니 대회는 취재부장으로, 2004년 아테네올림픽 때는 스포츠국장으로서 MBC 올림픽 방송단장을 맡은 것 또한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개막식 최종 리허설 특종 방송

1996년 근대올림픽 100주년 기념 대회로 치러진 애틀랜타올림픽은 7월 15일 센테니얼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엄청난 더위 속에 개막식 최종 연습이 진행되고 있었다. 비밀에 붙여진 개막식 행사는 당연히 철저하게 취재가 봉쇄됐지만 ‘혹시나 문틈 사이로 연습 장면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각국 취재기자들은 스타디움 주변 곳곳을 서성이고 있었다.

나는 양재철 카메라 기자와 함께 정면 돌파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정문에는 기관총으로 무장한 안전요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회사에서 만들어간 기념 배지를 주며 내부 취재가 가능한지 물었다. 선물을 받은 흑인 지휘자 군인이 무선으로



본부에 연락을 취하는 것 같았다. “MBC crew가 취재를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본부의 답이 칙칙거리는 소리와 함께 들렸다. “NBC는 주관 방송이므로 30분 이내의 짧은 취재는 가능함”이라고 말했다. 총을 든 흑인 병사가 문을 열어주며 ‘only thirty minutes!’라고 친절히 말해주는 것이었다. 와~! 이런 행운이...

‘MBC’가 무선을 타고 미국의 ‘NBC’로 변조돼 딱 우리에게만 취재의 문을 열어 준 것이다. “뛰자!!...자칫 발각될 수도 있으니...” 두 사람은 스타디움 안으로 뛰어 들어가 숨 가쁘게 촬영과 오프닝 녹화를 서둘렀다. 경기장 안에는 엄청난 더위 속에 개막식 행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었고 우리는 현장 자원봉사자의 인터뷰까지 마친 뒤 취재 테이프를 빈 테이프로 갈아 끼우고 스프링처럼 튀어 나왔다. 그날 저녁 뉴스데스크에 이날의 최종 리허설 장면은 특종으로 방송됐다. 정면 돌파의 취재 욕심과 무전기의 잘못 전달된 발음으로 얻은 행운의 특종이었다. 다만 그 사건 이후 IOC는 개막식 리허설의 취재를 완전히 봉쇄했고 IOC가 제공하는 짧은 시연 영상만 방송이 가능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계순희(북한 유도 영웅)를 해설자로

스포츠국장으로서 2004년 아테네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차별화를 갖춘 경기 해설자들을 섭외하는 일이었다. 근대 올림픽의 발상지에서 열리는 28회 아테네 올림픽에 방송단장의 소명을 안고 가는 터라 더욱 걱정이 컸다. 올림픽 준비에 한창이던 어느날,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일본의 스포츠 기획사 사장이 한국에서의 행사 기획을 위해 나를 찾아왔는데 대화를 하던 중 깜짝 놀랄 얘기를 들려줬다.

즉 ‘자기는 스포츠 관련 마케팅과 사업을 위해 평양을 자주 방문하는데 유도 스타 계순희가 양아버지처럼 자기를 따른다’는 내용이었다. 계순희 뿐 아니라 북한유도협회 회장도 그의 영향력 아래 있다며 본인도 계순희 때문에 아테네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시 MBC에서 계순희를 별도로 취재하거나 활용할 생각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 제안을 듣고 순간적으로 ‘계순희를 유도 해설석에 앉힐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그 사장은 ‘그렇게 되도록 해보

역발상의 묘미

〈올림픽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이야기〉

겠다’고 흔쾌히 약속했다. 다만 ‘북한유도협회에 선물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한 지원만 해달라’고 했고 나는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계순희가 MBC 중계석에서 유도 해설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애틀랜타올림픽 여자 유도 48kg급 결승에서 16세의 어린 나이로 처음 등판해 84연승 신화의 주인공 일본의 간판 ‘다무라 료코’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어 세계를 놀라게 했던 계순희 선수. 이후 체급을 올려 가면서도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따냈던 북한 스포츠의 최고 인기 스타가 우리 해설석에 앉을 수 있었다..



북한 유도 영웅 계순희

일본 스포츠 기획사 사장과의 특별한 비밀 약조를 간직한 채 2004 아테네올림픽은 개막됐고 우리 제작진은 계순희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런데 유도 경기 일정이 시작되자마자 그 사장은 북측의 바뀐 제안을 전해왔다. 내용인즉 ‘MBC 해설은 계순희가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가능하다’는 북한유도협회의 입장을 알려온 것이다.

금메달을 따낸 이후 기분 좋은 상황이 돼야 특별한 해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뜻이었다. 그래서 “좋다. 세계 정상이라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니 믿고 기다리겠다”고 동의했다. 계순희의 57kg급 경기 이후에도 4개 체급의 경기가 더 계속되니 계순희를 활용할 시간은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누구보다 계순희의 경기 결과를 초조하게 지켜보는 우리 제작진은 그녀가 승승장구 결승에 오르자 이제 한 경기만 치르면 해설석에 앉힐 수 있다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여자 유도 57kg급 결승 무대...계순희는 독일의 ‘이본 보이니쉬’를 맞아 선전했으나 결과는 효과 1개 차이로 은메달. 계순희는 주저앉아 눈물을 쏟더니 경기장 밖으로 튀쳐 나가고 말았다. 아~!!! 너무도 아쉬운 순간이었다. 이대로 북한 선수의 한국 방송 첫 해설의 희망이 무너지는가? 예상치 못한 은메달로 실의에 빠진 계순희를 억지로 불러낼 분위기가 아니었다. 즉각 그 사장을 만났다.

북한 선수단의 상황으로는 계순희의 해설은 어려워졌으니 단독 인터뷰할 기회라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북한유도협회장과 계순희를 만나 설득해보겠다며 자리를 떴다. 20여 분 뒤, ‘한 시간 후에 경기장 입구 외진 장소에서 계순희를 만나게 해줄테니 준비해달라’는 답이 왔다. 부랴부랴 김주하, 박경추 앵커와 함께 약속된 장소로 달려갔다.

정확한 시간에 눈물을 닦고 평정을 되찾은 계순희가 코치와 함께 나타났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대본이었지만 세 사람의 즉흥 인터뷰가 시작됐고 한 시간여 만에 일사천리로 녹화를 끝냈다.

그날 저녁 특집방송 북한의 유도 스타 계순희와 단독 인터뷰(40분 특집물)가 방송됐다. 당시 계순희의 결승전 시청률이 25%가 넘었는데 우리 단독 특집은 23%를 기록할 정도로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해설 대신 급조된 단독 인터뷰로 아쉬움을 달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던 아테네올림픽 차별화된 MBC 스포츠 만의 결실이였다.

오는 7월 26일에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을 위해 방송 3사 스포츠국은 지금쯤 모든 준비를 끝내고 긴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국제신호에 캐스터와 해설자, 거기에 각종 특집으로 어떻게 차별성을 갖추고 시청자를 만날 것인가? 올림픽은 국가와 선수들의 경쟁이지만 이에 못지않은 방송사들의 치열한 시청률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김승월 칼럼

김승월
(편제·이사)

“언제나 신입사원의 마음가짐으로 출근하면 어떨까요?”

새내기 PD 시절,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들은 말이다. 내 기억이 맞다면 김신숙 아나운서가 진행한 ‘푸른 신호등’ 오프닝 멘트였다.

잔뜩 긴장하고 뭔가 잘해보고 싶던 때라서 그 말이 그대로 머리에 박혔다. 그래서 내내 신입사원처럼 직장생활 하려고 애썼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학기마다 이 멘트를 인용하고 있다. “늘 신입사원처럼 직장생활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쓴 화살은 어디로 날아갔을까?” 30여 년 전 라디오 제작 2부 부회의 때 황기찬 부장님이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이 어떤 청취자에게는 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렇게 말했다. 황 선배님은 프로그램 제목들을 시처럼 지으셨다.



황기찬 선배님

ABU 대상을 받은 “찍을 수 없는 사진”,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국제퍼처 회의’에서 발표했던 “무수한 이별” 등이 그분의 솜씨였다.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야 그 말씀의 발원지가 서규석 大선배님께서 라디오 PD 2기 신입사원 연수에서 황 선배님을 비롯한 수습사원들에게 들려주신 시의 한 구절임을 알게 됐다.



서규석 선배님

서 선배님을 일터에서 직접 뵈 적은 없지만 MBC 도서실에 비치된, 그분의 雅號를 딴 〈松齊文庫〉를 볼 때마다 그분에 대한 존경심에 머리를 숙이곤 했다.

〈松齊文庫〉는 방송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영어와 일본어 원서들이었다. 아무튼, 훗날 그 시의 출처를 찾아보니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의 시 〈화살과 노래〉의 첫 구절이었다.

방송과 연관 지어 생각하면 방송의 영향과 방송 제작자의 책임감을 되돌아보게 해 준다. 나는 원문을 번역해 몇 자는 빼고 몇 자는 덧붙여 창작하듯 번안해서 나의 퇴임식 때 퇴임사 클로징으로 이 시를 인용했다.

방송과 詩 〈내가 쏜 화살은 어디로 날아갔을까〉

화살과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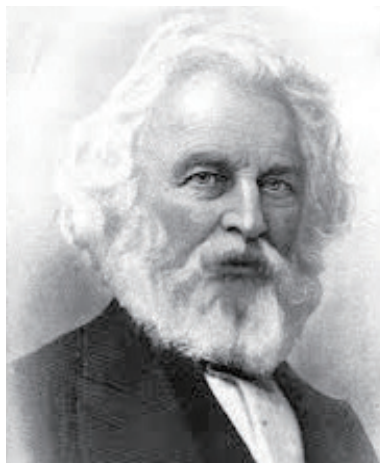
내가 쏜 화살은 어디로 날아갔을까?
한순간에 저 너머로 사라진 그 화살을
바라본들 볼 수 있을까?

내가 부른 노래는 어디로 울려 퍼졌을까?

한순간에 저 너머로 울려 퍼진 그 노래를
귀 기울인들 들을 수 있을까?

먼 훗날 세월이 흘러흘러 흐른 뒤에야
나는 다시 보았네 떡갈나무 밑동에
그대로 박혀 있는 옛 모습 그 화살을

먼 뒷날 시간이 가고가고 간 뒤에야
나는 다시 들었네, 친구의 가슴에서
그대로 울리고 있는 그 시절 그 노래를



롱펠로우 시인

롱펠로우의 방송이 없던 시대에 이 시를 썼지만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력으로 방송의 본질을 담아냈다.

한국에는 이런 시가 없을까. 오픈 AI인 Chat GPT를 이용

해 찾아봤다.

요즘 대학 강의 준비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또는 SNS에 올리는 글의 삽화를 만들 때도 유료 버전인 Chat GPT4.0을 활용한다. 어처구니없는 반응도 보이지만 놀랄만한 답도 내놓는다.

처음에는 김수영, 김혜순, 문정희와 같은 시인의 작품에서 찾아보라고 답했다. 다른 각도로 질문하니 공감하기 힘든 추천이 나왔다. 해서 네이버에서 개발한 무료 인공지능 서비스인 ‘클로버엑스’로 검색했다. 먼저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을 골랐다. 좀 더 낭만적인 시로 부탁했더니 운동주의 ‘별 헤는 밤’과 김수영의 ‘풀’을 내놓았다. 그런 대로 ‘풀’이 나아 보였다.

풀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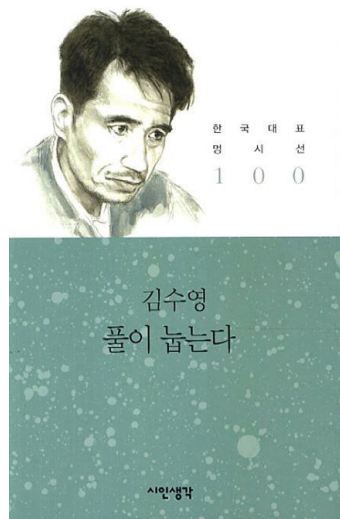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져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김수영 시인

흔히 이 詩에서 ‘바람’은 ‘정권력’, ‘풀’은 ‘민초’라고 여긴다. 하지만 ‘바람을 ‘방송’이라고 하고 ‘풀’을 ‘시청자’라고 보면 어떨까. AI ‘클로버엑스’의 답변이다.

“이 詩를 방송과 시청자의 관계로 해석하면 방송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따라 시청자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송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긍정적이면 시청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방송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부정적이면 시청자는 소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풀잎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방송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없으면 시청자는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방송이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詩는 시인이 쓰지만 해석은 독자의 몫이다. 방송 프로그램도 방송사가 만들지만 수용은 시청자의 몫이다. 우리가 쏘아 올린 화살은 어디로 날아갔을까.

‘어떤 이의 가슴에 보석처럼 박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해보지만, ‘누군가의 등에 꽂혀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

시청자들이 선택한 최고의 선거방송!

선택 2024



총선 개표방송 압도적 1위, 경쟁사 두배 이상!

MBC 가구시청률 10.4% > KBS (5.2%) + SBS (4.8%)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 결과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1위

국민의 선택으로 다시 한번 이를 증명한 **MBC**
명실상부한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우뚝 서겠습니다